2006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제 1 교시 언어추론

계열공통 성명 : _____ 수험번호 : _____ 홀수형 1

- 수험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 문제지로,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로 응시해야 합니다. 문제지가 자신에게 맞는 문형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00 ~ 10 : 30 (90분)** 입니다.

1.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사용된 것은?

① 예전에 그는 김 선생님에게서 판소리를 사사(師事)했다.
② 날이 점점 더 어두워져 길을 찾기가 막역(莫逆)해지고 말았다.
③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 출신자들을 준용(準用)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그 해결책은 자신이 처음 야기(惹起)한 것이라고 사장은 자랑하였다.
⑤ 안전 장비를 제대로 휴대(携帶)하지 않은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는 것은?

① 전봇대의 높이를 가름할 수 있겠니?
② 그는 당황하지 않고 곰곰히 대책을 궁리하였다.
③ 요컨데 이 문제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그는 회사 일을 마치면 으레 동료들과 술 한잔을 한다.
⑤ 오지랖이 넓은 그 친구는 이웃 동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

3. 어법에 맞는 것은?

① 사법을 맡은 대신들과 행정을 맡은 대신들은 각기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법률은 의정에 참여한 여러 대신들이 작성된 것을 시행한다.
② 자연을 분석 가능한 물질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한, 자연을 인간이 무제한적으로 지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고하는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③ 시헌력은 명나라 말기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든 역법으로, 조선 인조 22년에 김육이 그 당시에 중국 연경에서 신학문을 수학하였다.
④ 이 건물은 높은 처마와 고담한 채색이 숙연한 의기를 지녀,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분발하는 기개를 생기게 한다.
⑤ 지폐는 주화와 달리 종잇조각을 사용한 돈인데, 그 종이에다 정교한 무늬를 인쇄하여 위조하는 폐단을 막고 있다.

4. <보기 1>은 '에서'에 대한 뜻풀이의 일부이다. <보기 2>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1>

ㄱ.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게 하는 격조사
ㄴ. 앞말이 처소의 뜻을 갖게 하는 격조사
ㄷ.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게 하는 격조사

<보기 2>

a. 그건 어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b. 단지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c.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데가 없었다.
d.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e.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어제 저녁에 드디어 발표되었다.

	ㄱ	ㄴ	ㄷ
①	b	a	c
②	b	a, e	c
③	d	a, e	b, c
④	d, e	a, c	b
⑤	d, e	c	b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종께서는 빼어난 풍모와 영특한 자질을 가져 태조의 치우친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히 정종의 유명(遺命)을 받아 왕위를 형제간에 계승하여 왕좌의 화미(華美)함을 전했습니다. 예(禮)는 아랫사람을 접함에 도탑고 관찰력은 사람을 아는 데 실수가 없었으며, 근친 왕족에게 아부하지 않고 항상 호강(豪强)한 자들을 억눌렀습니다. 소원하고 미천한 자를 버리지 않고 홀아비나 과부에게 혜택이 빛나니, 즉위한 해로부터 8년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교화가 맑고 공평하며 형벌과 은상(恩賞)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쌍기(雙冀)가 등용된 이래로 임금께서는 문사(文士)를 받들고 중히 여겨 은혜로운 예(禮)가 지나치게 풍성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문사들이 적재(適才)가 아닌데도 분에 넘치게 진출하였고 차례를 뛰어 승진하였으며, 심지어는 한 해를 채우지 않고 고관이 되기조차 했습니다. 임금께서 밤마다 이들을 불러 접견하고 날마다 태도를 부드럽게 하여 즐기니, 군국(軍國)의 중요한 임무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酒食)과 연유(讌遊)가 잇달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북의 용렬(庸劣)한 자들이 기대 오기를 원하나, 그 지혜와 재주는 논하지 않고 모두 특별한 은혜와 예절로 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생(後生)이 다투어 진출하고 구덕(舊德)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의 풍속을 소중히 한다 하면서도 좋은 제도는 취하지 않았고, 중국의 선비를 예우한다 하면서도 어진 인재는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 어린 재물을 더욱 짜내었지만 오히려 사방에서는 헛된 명예만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는 정사를 걱정하며 힘쓰지 않고 빈료(賓僚)를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깊어 가고 군신의 의논이 날로 막혀 마침내 감히 시정(時政)의 득실을 말하는 자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불교를 깊이 믿고 과중하게 여겨, 상시로 치르는 행사가 이미 많은데도 따로 기원하여 향불을 피우고 불법을 닦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과 장수를 구하여 기원할 뿐이었고 한정된 재력을 다 써서 무한한 인연을 지으려 했습니다. 스스로 지존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작은 공덕 짓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또 출입과 연유에 사치를 극도로 하였으나, 그 눈앞에 큰 일이 없음을 법력이 그렇게 해 준 것이라 하여 스스로 하는 바를 바르게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궁실은 법도를 넘었고, 의복과 음식은 진귀하고 고운 것을 사용했으며, 토목 사업은 때를 가리지 않았고, 공예품의 제작은 쉴 날이 없었으니, 대략 계산해도 보통 때 1년의 경비가 족히 태조 때 10년의 경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말년에 이르러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만약 광종께서 처음처럼 공검(恭儉)과 절용(節用)을 생각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였다면 어찌 그 녹(祿)과 수명이 겨우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그 끝마침을 처음과 같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경신년부터 을해년 사이에는 간악한 자들이 다투어 나아와 참소와 중상이 크게 일어나니,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이 그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그 주인을 논하기에 이르렀으니, 상하의 마음이 서로 헤어지고 군신이 한 몸 같이 되지 못했으며, 구신(舊臣)과 숙장(宿將)이 잇달아 살해되고 그들의 골육과 인척이 또한 다 도륙되었습니다.

게다가 혜종께서 형제를 아끼고 정종께서 국가를 잘 보전한 것은 은의(恩義)로 논한다면 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임금이 모두 외아들이 있을 뿐이었는데 또한 그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비단 그 덕을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시 원한을 깊이 맺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외아들에게조차 의혹과 시기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경종께서 동궁에 계실 때 매일 불안해하다가 요행히 그 왕위를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어찌하여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고 일찍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깊이 통탄할 일입니다.

- 고려사 최승로전 -

5. 광종대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쌍기의 등용 후부터 경신년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② 광종은 즉위 8년까지는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처벌과 포상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③ 광종에게 억압받았던 세력이 쌍기의 등용 후 '문사', '후생'으로 일컬어지는 부류로 등장하였다.
④ 현실을 호도하는 무리가 있었으며, 이들로 인해 광종의 마음이 정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⑤ '구신', '숙장'으로 일컬어지던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와 재주를 갖추었으나 점차 이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6. 위 글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글쓴이가 광종에게 대책을 제시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사의 관직 제수에 원칙을 세워 외침에 대비토록 하십시오.
② 불교를 신앙 생활에 국한하고 현실적 통치 이념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③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형벌에 처하는 것을 금하여 노비의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④ 대대로 부를 축적한 호강한 이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국고를 충실히 하십시오.
⑤ 중국의 제도보다 우리의 고유한 풍속과 문물을 소중히 하여 시대 상황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7. 글쓴이가 광종을 평가하는 데 고려한 요소를 찾을 수 <u>없는</u> 진술은?

① 학문을 닦지 않고서 좋은 정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② 신료들이 불만을 품지 않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악의 잣대를 보여 주는 데는 상벌을 공평히 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③ 밝은 임금은 측근의 신하가 왕명에 순종만 하는 것과,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선비가 물러나 자취를 감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④ 올바른 정치는 목수가 재목을 그 성질에 맞게 제자리에 올려놓아 큰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려 쓰는 데서 출발한다.
⑤ 백성들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꾀로써 속일 수도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어 복종케 하려면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족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친족의 구성 양식과 범위는 사회에 따라 상이하며, 이런 점에서 친족은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관계이다. 어떤 사회에서는 극히 좁은 범위의 가까운 친족들로 친족 집단이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흔히 친족 관계를 보완하는 의사(擬似) 친족 제도가 나타난다. 혈통에 따른 친족 집단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사회인 멕시코의 콤파드라스고(compadrazgo) 체계도 이런 제도의 하나이다. 콤파드라스고는 원래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등의 성사(聖事)를 통해 '대부모(代父母)-대자녀(代子女)'라는 종교 의례적이고 정신적인 후원 관계, 즉 '파드리나스고(padrinazgo, 대부자 관계)'를 형성할 때, '대부모-친부모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모-대자녀-친부모'를 묶는 체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멕시코의 콤파드라스고는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가톨릭의 이식과 함께 형성되었다. 식민지 통치자들은 원주민에게 가톨릭을 강제하면서 원주민의 신체나 가족 관계들도 규제하였다. 식민지 초기에는 세례, 성체 성사, 결혼 등 개인의 종교 생활 주기와 관련된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대부자 관계가 중심이었다. 17·18세기에 이르러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가 약화되고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성이 일정 정도 확보되자, 콤파드라스고는 원주민 사회에 잔존하던 의례적 친족 제도의 요소와 혼합되어 변형과 재창조를 거듭하면서 종교적 제도를 넘어 하나의 사회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멕시코에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콤파드라스고가 존재한다. 성사 콤파드라스고만 하더라도 세례와 관련하여 반지, 음식 등 세례에 필요한 각 부분을 나누어 후원함으로써 여러 명의 대부모가 생겨나기도 한다. 그리고 콤파드라스고는 그 범위에서도 대자녀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와 조부모에까지 확장되어 마을 사람들 다수가 의례적 콤파드라스고로 얽혀 있으며, 개인 간의 쌍대적(雙對的) 관계를 넘어 친척과 2, 3세대를 포괄하는 다대적(多對的) 관계로 확장된다. 한편 성사와 관계없는 비성사(非聖事) 콤파드라스고도 형성되는데, 이는 크게 사람을 매개로 한 관계와 수호성인상(守護聖人像)과 같은 물건을 매개로 한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종교적 의례가 없는 편이고 권리와 의무가 약할 뿐, 구조적 측면에서는 성사 콤파드라스고와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해 후자는 물건을 매개로 하므로 물건과 대부모의 관계보다 물건 주인과 대부모가 맺는 관계가 중심축을 이루며, 이 경우 후원 여부에 따라 지속 기간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변화는 콤파드라스고에서 대부자 관계보다 대부모와 친부모의 관계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확장을 통해 콤파드라스고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대부모-대자녀-친부모'를 묶는 체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어떤 콤파드라스고에서는 친족 집단 내에서 대부모를 선택하여 부모·형제·조부모의 역할을 모방하고 그 유대 관계를 지속시킨다. 또한 교회법에 따라 구성원 간의 금혼 규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콤파드라스고가 친족 관계를 상징적으로 모방하는 제도, 즉 의사 친족 제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른 콤파드라스고에서는 많은 경우 대부모는 친족 내에서 선택되지 않으며, 구성원 간의 금혼 규칙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콤파드라스고가 혈연에 기초하는 친족 제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연한 창조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콤파드라스고는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족 관계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케 함으로써 내적 통합과 외적 경계 짓기의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 그리하여 핵가족이 증가하는 오늘날에도 콤파드라스고는 개인이나 가족이 사회적 관계를 획득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멕시코 콤파드라스고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콤파드라스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② 다대적 관계의 경우에는 의사 친족 제도로서의 속성이 약하다.
③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과 이식된 종교적 제도의 결합에 기반을 둔다.
④ 대부모-친부모 관계가 중심에 놓임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었다.
⑤ 비성사 콤파드라스고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성사 콤파드라스고의 경우보다 약하다.

9. 위 글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 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은?

<보 기>

◦ 이달리아는 호세의 외아들 루이스의 세례 대모이다.
◦ 라울의 딸 카르멘의 초등학교 졸업식 때 호세는 학용품을 선물하여 라울과 콤파드라스고를 맺었다.
◦ 이달리아의 친척 로라는 이달리아 집의 수호성인상을 매개로 이달리아와 콤파드라스고를 형성하였다.

① 루이스와 이달리아는 성사 콤파드라스고를 통해 대부자 관계를 맺고 있다.
② 호세와 라울은 사람을 매개로 한 비성사 콤파드라스고를 형성하고 있다.
③ 이달리아 외에도 호세와 성사 콤파드라스고를 형성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
④ 로라는 이달리아와 친척이므로 로라와 호세의 관계도 콤파드라스고라 할 수 있다.
⑤ 이달리아 집 수호성인상과 관련된 후원을 통해 로라와 이달리아의 콤파드라스고가 지속된다.

10. 멕시코 콤파드라스고의 현실적인 유효성을 가장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① 통혼권을 확대하여 친족 결속력을 증대시킨다.
② 유대 관계를 확장하여 사회적 역량을 증대시킨다.
③ 재화의 재분배를 통해 계층 간 이해 갈등을 완화시킨다.
④ 산업화의 진행으로 핵가족이 증가되는 추세를 완화시킨다.
⑤ 종교 윤리와 전통 가치를 융합함으로써 문화 수용 능력을 증대시킨다.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 그 두 부분을 각각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라 부르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의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다시 나뉜 한 부분으로 영상(映像)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이때 내가 말하는 영상이란 그림자, 물에 비친 상(像), 거울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 같은 것일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나뉜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영상이 닮고 있는 실제의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초의 두 부분이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었고, 이때 '닮은 것'과 '닮음의 대상'의 관계는 '의견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러고 싶고 말고요."

"㉠ <u>그러면 이번에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u> 생각해 보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일세. 이 부류의 한 부분에서는 혼(魂, psyche)이 앞서 '닮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닮은 것'으로 다루어, 가정에서 원리(arche)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탐구하게 되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아가 앞 부분의 '닮은 것'도 거치지 않고 이데아를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 봄세. 나는 자네가 이를테면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말일세.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들로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떠한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탐구를 시작한 목표에 이르러 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물론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것도 알고 있을 걸세.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형이 아니라 그것이 닮아 보이는 원래의 것에 관해서이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때문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 혼은 불가피하게 가정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는 혼이 가정에서 벗어나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의 나머지 한 부분은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반(基盤, hypothesis)으로 대할 뿐이라네. 다시 말해서 '무가정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으로 대할 뿐이라는 말일세. 이때 이성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만을 이용하며 또 이데아에서 끝을 맺게 마련이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충분히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기하학자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적 상태를 '추론적 사고'라 일컫지 '직관'이라 일컫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내 말뜻을 아주 충분히 납득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뉜 각 부분에 대응하여 혼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세나. 말하자면 최상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확신(pistis)'을, 그리고 가장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eikasia)'을 배당하게나. 그리고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게나."

- 플라톤, 국가 -

11.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호수에 비친 달은 '상상'의 대상이다.
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확신'의 대상이다.
ㄷ. 열매 속의 씨앗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다.
ㄹ. 칠판에 그려진 직선은 '직관'의 대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u>않은</u> 것은?

① '선분'이 나뉘는 기준은 명확성 혹은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②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이면에는 가치의 서열이 개재되어 있다.
③ 존재하는 것들의 단계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④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이나 수 자체를 누구나 안다고 가정하고서 탐구한다.
⑤ '눈에 보이는 부류'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해 갖는 관계는, '의견의 대상'이 '인식의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13. ㉠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① '추론적 사고'와 '직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나눈다.
② 이데아만을 이용하여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③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눈다.
④ 눈에 보이는 도형을 탐구하느냐, 이 도형이 닮아 보이는 사물을 탐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
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는 부분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가정의 것'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구별하여 나눈다.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나—

나는 약 삼 분 가량의 지도(地圖)를 설계하였다. 우선 나는 순영의 정면으로 다가서 보는 수밖에—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 월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영의 얼굴이 웬일인지 왼쪽으로 좀 삐뚤어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큰 범죄나 한 사람처럼 냉큼 바른편으로 비켜섰다. 나의 그런 불손한 시각을 정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위치의 불리로 말미암아서도 나는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실로 사 년 전 첫여름 어느 별빛 좋은 밤) 경관(警官)이 무엇 하러 왔는지 왔다. 나는 삼천포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영은 회령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 내 그 인색한 원근법이 일사천리지세로 남북 이천오백 리라는 거리를 급조하여 나와 순영 사이에다 펴놓는다. 순영의 얼굴에서 순간 월광이 사라졌다.

아내가 삼천포에서 편지를 했다. 곧 돌아가게 될는지 좀 지체가 될는지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짐작이 서지 않는단다.

내 승낙 없이 한 아내의 외출이다. 고물 장수를 불러다가 아내가 벗어 놓고 간 버선짝까지 모조리 팔아먹으려다가—

아내가 십 중의 다섯은 돌아올 것 같았고 십 중의 다섯은 안 돌아올 것 같았고 해서 사실 또 가랬댔자 갈 데가 있는 바 아니고 에라 자빠져서 어디 오나 안 오나 기다려 보자꾸나—

싶어서 나는 저녁이면 윤(尹) 군을 이용해서는 순영이 있는 바[bar] '모로코'에를 부리나케 드나들었다.

아내가 달아났다는 궁상이 술 먹는 남자에게는 술 먹기 좋은 구실이다. 십 중 다섯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눈치를 눈곱만치라도 거죽에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조금도 슬프지 않은 슬픔을 재주껏 과장해서 순영의 동정심을 끌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 이런 던적스러운 청승이 결국 순영을 어찌할 수도 없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영은 광주로 갔다. 가던 날 순영은 내게 술을 먹였다. 나는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 찢고 싶었다. 나는 울었다. 인생은 허무하외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순영은 이것은 아마 술이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고 여기고 맥주 한 병을 더 청하는 것이었다.

반 년 동안 나는 순영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에 십 중 다섯으로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이 아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나는 전의 열 갑절이나 사랑할 수 있었다. 내 순영에게 향하여 잔뜩 곪은 애정이 이에 순영이 돌아오기 전에 터져 버린 것이다. 아내는 이런 나를 넘보기 시작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배앝는다.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말 한마디 없이 도로 맞는 내 얼굴 위에다—

부질없는 세월이 사 년 흘렀다. 아내의 두 번째 외출은 십 중 다섯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 나는 내 고독을 일급 일 원 사십 전과 바꾸었다. 인쇄 공장 우중충한 속에서 활자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생활을 찍어 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영이 그의 일터를 옮기는 대로 어디까지든지 쫓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일급 일 원 사십 전에 팔아 버린 내 생활에 그래도 얼마간 기꺼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순영 앞에서 술잔을 주무르는 동안뿐이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은— 아니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은 순영의 마음은 남북 이천오백 리와 같이 차디찬 거리 저편의 것이었다. 그 차디찬 거리 이편에는 늘 나와 나처럼 고독한 송(宋) 군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순영 앞에서 내 고독을 호소할 수조차 없어졌다. 나는 송 군의 고독을 빌려다가 순영 앞에서 울었다. 송 군의 직업은 송 군의 양심이 증발해 버린 뒤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한다.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하다. 나는 이런 송 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 슬픔을 입증시켜 보느라고 실로 천만 어의 단자(單字)를 허비했다. 순영의 얼굴에는 봄다운 홍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 나는 어느 틈엔지 나 자신의 위치를 그만 잃어 버리고 말았다. 필사의 노력으로 겨우 내 위치를 다시 탈환했을 때에는 이미,

송 선생님이세요? 이상(李箱) 씨하구 같이(이것은 과연 객쩍은 덧붙이개였다) 오늘 밤에 좀 놀러 오세요— 네?

이런 전화가 끝난 뒤였다. 송 군은 상반기 상여금을 받았노라고 한잔 먹잔다.

먹었다.

취했다.

몽롱한 가운데서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머얼리 동경으로 가 버리리라.

갈 테야 갈 테야. 가 버릴 테야(동경으로).

아이 더 놀다 가세요. 벌써 가시면 주무시나요? 네? 송 선생님—

㉤ 송 선생님은 점을 쳐 보나 보다. 괘(卦)는 이상에게 '고기'를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송 군은 나보다도 먼저 일어섰다. 자동차를 타자는 것이다. 나는 한사코 말렸다. 그의 재정을 생각해서도 나는 그를 그의 하숙까지 데려다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숙 이층 그의 방에서 그는 몹시 게웠다. 말간 맥주만이 올라왔다. 나는 송 군을 청결하기 위하여 한 시간을 진땀을 흘렸다.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유월의 밤바람이 아카시아의 향기를 가지고 내 피곤한 피부를 간질이는 것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토하면서 울고 울다가 잠이 든 송 군을 생각했다.

순영에게 전화나 걸어 볼까.

순영이? 나 상(箱)이야— 송 군 집에 잘 갖다 두었으니 안심할 일—

오늘은 어쩐지 그냥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단다. 집으로 가 일찍 잠이나 자리라 했는데 '멕시코'에—

와두 좋지— 헐 이얘기두 좀 있구—

조용히 마주 보는 순영의 얼굴에는 사 년 동안에 확실히 피로의 자취가 늘어 보였다. 직업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순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나는 정색하고,

송 군과 결혼하지 응? 그야말루 송 군은 지금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오— 송 군이 가진 양심, 그와 배치되는 현실의 박해로 말미암은 갈등, 자살하고 싶은 고민을 누가 알아주나—

송 선생님이 불현듯이 만나 뵙구 싶군요.

십 분 후 나와 순영이 송 군 방 미닫이를 열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송 군의 고민은 사실화하여 우리들 눈앞에 놓여 있었다.

아로날 서른여섯 개의 공동(空洞) 곁에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주소가 적힌 종잇조각이 한 자루 칼보다도 더 냉담한 촉각을 내쏘으면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밤 깊은 거리를 무릎이 척척 접히도록 쏘다녀 보았다.

- 이상, 환시기(幻視記) -

1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위트와 유머를 구사하여 사건의 의미를 희화화하고 있다.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③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④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도회적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5.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순영은 번민에 사로잡힌 송 군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
② '나'와 순영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이다.
③ 송 군은 사랑의 갈망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④ 아내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함으로써 '나'와 순영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⑤ 순영은 아내와의 불화에 빠져 있는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16.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나'와 순영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② ㉡: 치사할 정도로 치근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③ ㉢: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다.
④ ㉣: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에 흡족해하였다.
⑤ ㉤: 주저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장수 야,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다. 그놈들하고 어떻게 헤헤헤 웃으면서 일을 계속해. 그 분노가 금방 삭혀질 것 같애?

횡 보 그 사람들 탓하지 말어. 해고시키지 않고도 신제품 개발, 영업 세일즈 강화 등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었어. 회사가 오 개월째 적자라니까 노력도 안 해 보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근로자의 목을 쳐?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냐?

(중략)

동 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해. 배 째면 아픈데?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냐. 옥살이시키면 괴로운데? 판사가 어떻게 무기 징역을 선고해. 기업가가 노동자의 작은 아픔까지 다 챙기다 보면 개뿔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거야.

횡 보 야, 박장수. 남들 핑계대지 말어. ㉠ <u>부처님 살찌고 여위기는 석수 손에 달렸다.</u> 너 지금까지 남들이 돈 벌어라 장사해라 해서 기업했냐? 아니지? 삼화금속 팔어 말어? 니 뜻만 얘기해. 어서.

재 보 빨리.

횡 보 빨리 임마.

재 보 지금 당장.

낭 보 잠깐 잠깐 잠깐.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볶아 대면 얘 돌아버려. 지금 집에 불이 났어. 식구들이 다 타 죽을 판국이야. 그런데도 불지른 놈이 누구냐고 그놈만 찾고 있어.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

동 보 나도 과거 타령은 딱 질색이야. 중요한 건 미래야. 방향지(方向知)엔 두 가지가 있어. 거북이형과 독수리형. 거북이는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전전긍긍해. 석 자 앞도 못 내다봐. 붕 떠서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보자고. 박장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노사 분규도 없고 정리 해고도 없는 임대업을 해야 되잖겠어?

횡 보 [가] 니 방향지는 틀렸어. 너야말로 거북이형이야. 코앞의 이익만 추구해. 당장 내 한 몸 편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구. 임대업을 하면 나 혼자 배불리 먹고사는 거고 공장을 한다는 건 인부들 팔백 명과 더불어 먹고사는 거야. 어떤 것이 더 훌륭한 방향지겠누?

재 보 ㉡ <u>하루 잘 먹자고 한창 일해야 할 소를 잡어?</u>

낭 보 (분신들을 보며) 잠깐만! 우리가 박장수한테 요구하는 건 너희들도 알다시피 각자 달라. 동보 넌 무조건 돈을 벌어라, 재보 넌 착하게 살아라, 횡보 넌 본분을 지켜라, 난 아름답게 살아라.

박장수 그래서?

낭 보 아름답게 사는 길은 자기 일에 열중할 때야. 넌 누가 뭐래도 기업가고 장수야. 옛날엔 국경 지키려고 창칼 들고 싸우는 게 장수였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무역 전쟁 아니냐. 기업가가 장수지. 넌 애국지사고 현대판 이순신이야.

동 보 어랍쇼? 말이 이상해지는데?

낭 보 나도 고민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나도 전에는 부황기를 싫어했어. 현실을 못 보는 허풍쟁이라고. 지금은 안 그래. 부황한 만큼 목표가 높아지고 야망이 생겨.

재 보 계속 얘기해 봐.

횡 보 어서!

낭 보 '기도하라, 상상하라, 실행하라!' 기업가는 회사를 확장시키고 돈을 벌어야 해. 한국 돈 세계 돈 싹 긁어모을 야망을 불태워야 한다. 그게 재보가 틈만 나면 말하는 선(善)인 거구, 동보가 말하는 방향지구, 횡보가 말하는 본분을 지키는 거야. 기업가가 돈 벌길 포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어? 작가가 대표작 써냈다고 절필하는 거고, 스님이 득도했다고 더 이상 수행하길 포기하는 거고, 과학자가 기똥찬 발명품 만들었다고 "더 이상의 연구는 필요 없다." 선언하는 거야. 할 일이 왜 더 없겠어. 기똥찬 거 발명한 우수한 머리로 죽을 때까지 혼신을 다 해 더 좋고 나은 걸 만들어 내야지, 안 그래?

재 보 맞아. 기업가가 돈 버는 거? 분명히 선이야. 기업가가 더 이상 안 벌겠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악이지. 안현숙이도 죽으면서 그랬잖아.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횡 보 치고 나가. 위기에 절망만 하고 있는 자, 자신에게 돌 던지는 놈이야. ㉢ 자신의 최대의 적은 자신의 부정적 사고야.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 너.

낭 보 팔백 명이 아니라 팔천 명이 더불어 먹고사는 터전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장수여 일어나라!

박장수 그럼 다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거야?

재보 · 횡보 · 낭보 응.

박장수 동보 넌?

동 보 ㉣ 낙숫물은 떨어진 데 또 떨어져. 앞으로 또 분규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낭 보 이번 분규는 우리 잘못도 많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중략)

박장수 그만 그만해. 좀 내비 둬. 대갈통이 빠개질 지경이야. 분신들이 너희 네 명뿐인 줄 알어? 수천 수만이다. 난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사단장이야. 오늘도 난 지친 몸으로 석양 들판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수만 명의 분신을 끌고 꾸역꾸역. 하루에도 수십 번의 모함, 야유, 타협, 요령, 분노, 사랑, 호감, 갈등, 방황, 난투, 아양, 꾸지람, 희망, 절망이 교차하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어. 나뿐이겠어? 다들 이렇게 힘겹게들 살겠지. ㉤ 그래, 개별적 진실, 총체적 거짓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짐승이었다가 부처였다가 다시 짐승으로 돌변하고. 이대로 좋은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 그 사이 어디메쯤 서 있어야 하는 건지.

- 이만희, 좋은 녀석들 -

17.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① ㉠: 재물 공양보다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다.
② ㉡: 목전의 이익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③ ㉢: 자기 반성이 때로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⑤ ㉤: 개인은 저마다 진실을 추구하지만, 집단을 이루면 거짓이 개입된다.

18.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아와 분신(分身) 사이의 심리적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아와 사회 사이의 갈등 양상도 반영하고 있다.
② '박장수'의 분신 중에는 합리적 자아를 대변하는 분신이 있는가 하면, 탐욕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분신도 있다.
③ 자아로부터 분리된 분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심, 처벌이라는 윤리적 초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난 본능과 충동을 깊이 조명하고 있다.
④ '낭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삶의 윤리나 현실적 책무로부터 벗어난 미(美) 자체보다는 현실 속에서 추구되는 삶의 미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수만 명의 군사들 위에 군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사단장'의 비유를 통해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19. <보기>의 A에 대한 B의 답변 방식이 [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A :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안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던 과거지사는 아예 언급하지 맙시다.

B : _____

① 과거에도 당신은 늘 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솔직한 대화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당신의 주장이 오히려 솔직한 대화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③ 과거지사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불신과 기만 운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거 문제를 들추어 서로 상처를 주는 언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④ 당신은 모든 잘못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요. 그러나 정작 과거에 잘못한 것은 누구입니까. 이 문제부터 따지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⑤ 현안에 국한하자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2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7년 외환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시장 개방으로 대규모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에 부합하는 가치관과 제도들이 확산되었다. 주주 대표 소송 등 소액 주주의 권한 행사 요건과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사외 이사가 확대되고 사외 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되었다. 소유 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이 '주주 가치 경영'은 시장 질서의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경영을 감시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주주 가치 경영의 전반적 확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만을 가질 수는 없다. 특히 지배 주주인 '총수'가 계열사 간 순환 출자와 복잡한 소유 구조를 통하여 자신의 출자분을 초과하는 과다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경우, 단순히 ㉠ 경영자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를 막는 장치만으로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총수는 자신이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들 사이의 내부 거래를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일반 주주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정비되지 않았다. 금융 계열사들도 총수의 영향력 아래 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인수 합병 시장도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주주 가치 경영은 총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실제로 일부 재벌 총수들의 소유권과 의결권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던 외국 자본의 역할도 미미하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총수 중심의 경영 전략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의 이해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주 가치 경영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판론자들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주주들이 경영자의 이익 추구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주주 이익 극대화는 곧 기업 활동에 관련된 주주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은 제안한다. 주식 소유권에 기초한 기업 소유는 다른 재산의 소유와 다르며,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 특수 투자의 담당자인 노동자들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반론을 피하기 힘들다. 아울러, 주주 이외의 이해 관계자가 기업 경영에 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극복하기 어렵다.

한편 기업들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외국 자본의 행동 때문에, ㉡ 외국 자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국부(國富) 유출을 막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주 가치 경영 확산과 함께, 외국 자본의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설비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계열사 간 출자 총액 제한이나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계열사 간 출자는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간접화하여 총수의 지배력 행사를 쉽게 하는 방편이었을 뿐 아니라 지배 주주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 소속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도 '남의 돈'으로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어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 의결권도 '1주1표주의'의 근대법적 소유권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선주나 이사 시차 임기제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경영권 방어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20. 주주 가치 경영에 관해 우리나라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 중, 글쓴이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 안에서 주주 가치 경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자본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경영 감시 제도를 도입해도 지배 주주가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지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잠재적 우호 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잘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주주 가치 경영은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설비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ㄱ. 차등 의결권 제도의 도입
ㄴ. 계열 기업 간 내부 거래의 공시
ㄷ. 주주 대표 소송 제소 요건 완화
ㄹ.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규제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 ㉡의 근거 가운데 글쓴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① 주주 이익만을 중시하는 제도는 기업의 단기 수익 추구 전략을 수반한다.
②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능력이 소진되고 있다.
③ 기존 경영권 보호 장치는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다.
④ 출자 총액 제한 제도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⑤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정책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23~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정립되는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은 입법 기관을 통해 제정되어 문자로 확정되는 법을 말한다. '성문'이라는 특성상 일단 법률이 제정되면, 그것은 적용에서 고착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는 당연히 필요한 속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회적 토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행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러면 다시 그 법률이 개폐되거나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 그 틈이 메워진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적시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이때 사회에는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된 관습이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까지 얻게 되면 관습법이라 불린다. 관습법의 이러한 개념은 법 체계에서 대체로 인정되며, 관습법은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우선, 관습법이 법률과 내용을 달리할 때 그 법률을 실효(失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변경적 효력설). 이는 관습법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규범이라는 면을 강조한다. 법률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하였다면 그것은 성문법이 사회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의 필요에 응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관습법을 실증주의적인 태도만을 고수하여 저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옳은 자세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의 원천인 ㉠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지지하는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깔려 있지 않은 법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관습법이 효력상 법률과 대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곧, 성문법에 대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경적 효력설의 입장에서는, 성문법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얽매일 필요는 없고,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률 규정을 문언(文言)에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법률 해석의 기본이라는 전제를 굳건히 유지하려는 주장도 강하다. 이 입장에서는 위 민법 규정을 법률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습법을 적용하라는 규정이라고 본다(보충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에서는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법의 존재를 법질서의 결단이란 차원에서 파악한다. 곧,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하는 관습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법질서는 성문법과 충돌하는 관습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 민법의 입법자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만을 부여하게 되면, 법률과 내용이 충돌하는 관습법은 논리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관습법은 성문법이 규율하지 않는 법적 문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어려운 문제는 관습법을 확인하는 일이다. 법전에 쓰여 있지도 않고 단순한 관행과도 구별되는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는 관습법이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한다. 이런 까닭에 관습법은 판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습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A]** 관습은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 승격된다는 주장까지 한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을 인정하는 경우, 그 사회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시기로 소급하여 그 시점부터 그 관습법은 존재해 왔다고 본다. 성문법과 달리 관습법은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드러내는 존재인 것이다.

23. 관습법에 관하여 변경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은?

① 관습법의 경우에는 법률에 대하여 신법(新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법적 확신이 결여된 법률이 존재할 경우, 관습법으로 하여금 그 공백을 채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관습법도 법이므로 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인 법원은 재판할 때 관습법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④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일견 관습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⑤ 법률을 제정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적응한 관습법은 그 법률에 저촉되더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법 규범으로 기능한다.

24. <보기> 중 ㉠과 ㉡에 대하여 반론이 될 수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 법질서와 사회 관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관습은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다.
ⓑ 사회 구성원들의 정당한 행위 양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습법 또한 법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 국회에서 대표되는 국민의 의사는 실제 국민의 의사와 다를 경우도 있으며, 이때에는 국민의 자율적 법 형성을 더 중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 법률의 내용과 충돌하는 관습법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의 기능을 훼손할 수도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에 대한 반론	㉡에 대한 반론
①	ⓑ	ⓐ
②	ⓑ	ⓐ, ⓒ
③	ⓑ, ⓓ	ⓒ
④	ⓓ	ⓐ
⑤	ⓓ	ⓒ

25. [A]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견해는?

① 법 규범을 창설하는 공동체의 의사는 관습법을 통해 표출되며, 이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속한다.
②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고,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를 통해 성립된 법 원칙들로 규율할 수 있다.
③ 법을 정립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이므로, 국가가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관습은 법이 될 수 없다.
④ 일정한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관습법의 존재 자체는 입법자가 인정한 사실이다.
⑤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판결이 반복되어 이러한 판결이 언제나 내려진다는 신뢰가 자리잡았을 때 형성된다.

[26～2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연은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렀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처음도 끝도 없이 끊임없는 변화를 지속해 왔다. 이를 운회(運會)라고 한다. 운(運)이라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말하며, 회(會)라는 것은 변화의 도중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이치는 동양의 ㉠ 옛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것을 대운(大運)의 순환으로 보아,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며 미래는 현재의 반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르다.

오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의 변화는 점진적이어서,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천지는 불변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서양의 지학자(地學者)들은 화석의 조사를 통해 동식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게 되었다. ⓐ 천도(天道)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그 변화가 지극히 은밀하고 완만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도 장구한 시간의 짧은 순간만을 본 것이어서 감추어진 변화를 알 수 없었다. 여름날의 매미가 어찌 봄과 가을을 알겠으며, 하루살이가 어찌 그믐과 보름을 알겠는가? 그런데도 불변이라 말한다면 참으로 눈먼 사람의 이야기이다. ⓑ 천운(天運)은 결코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천운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 천연(天演)이 그것이다. 천연에는 물경(物競)과 천택(天擇)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이는 만물에 모두 적용되지만, 특히 생물에서 두드러진다. 물경이란 만물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천택으로 나타난다. 천택이란 경쟁 끝에 홀로 살아남는 것이다. 자연에서의 선택이지만, 누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음에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힘[力]이라 하며,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을 지(智)라 한다. 사람은 지와 힘으로 만물을 이합(離合)시키면서 하늘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낸다. 사람이 이룬 일을 공(功)이요, 업(業)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인사(人事)라 한다. 사람이 꽃을 가꾸고 다리를 만드는 일 모두가 인사이다. 인사는 ⓓ 천공(天工)이 못 다한 것을 도와 주는 일이다.

하늘은 사람의 힘을 빌려 일을 이루고, 사람은 하늘이 준 것에 기대어 일을 이룬다. 일단 각자의 일이 이루어지면 하늘과 사람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람이 가꾸어 놓은 꽃이나 만들어 놓은 다리를 돌보지 않으면, 하늘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 꽃을 가꾸거나 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지만 그 근본을 말하자면 저 들판에서 스스로 피고 지는 것만이 하늘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사람이 가꾼 꽃과 나무, 만들어 놓은 다리라 한들, 상제(上帝)의 힘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겠는가? 사람이 천공을 빼앗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손으로 들고 발로 걷는 이 몸 또한 하늘이 내린 것이다. 어찌 다만 몸뿐이겠는가? 사려를 운용하는 재능과 행위를 제어하는 덕이 있기 때문에 초목이나 금수와 달라졌지만, 사람이 ⓔ 천명(天命)에서 벗어나 홀로 존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미증유의 사업을 이룬 위대한 성인(聖人)이라 할지라도 본성과 재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점에서는 곤충이나 초목과 다를 바 없다. 귀천은 다를지라도, 천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엔푸(嚴復), 천연론 –

26. 위 글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상제의 개념과 천연의 개념이 양립 가능하게 논의를 이끌고 있다.
② 진화론의 주요 내용을 동양의 전통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상생과 상극이라는 두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
④ 자연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자연에 내재하는 불변의 원리를 상정하고 있다.
⑤ 인간과 동물의 귀하고 천한 차이를 인간이 지닌 선천적 도덕성에서 찾고 있다.

27. ㉠의 관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 요임금, 순임금이 죽자 성인의 도가 쇠퇴하고 이상적인 정치가 무너졌으며 이후 역사는 쇠퇴의 길을 걸어 왔다.
② 성인은 백성의 마음을 비워 주되 배를 채워 주고, 백성의 심지를 약화시키되 신체를 강건하게 해 주어, 항상 무지와 무욕에 처하도록 한다.
③ 탕왕이 하(夏)나라 걸왕의 폭정을 평정하고, 주공이 무왕을 도와 은(殷)나라의 폭군 주왕을 토벌하였듯이, 안정과 혼란, 즉 치란(治亂)이 되풀이되었다.
④ 군주에게 인심(仁心)이 있고 또 그렇다는 명성이 있음에도 백성에게 은택이 미치지 못하고 후세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도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성왕(聖王)의 업적을 보려면 분명한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인데 후왕(後王)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오늘의 후왕을 버리고 옛날을 말한다면, 자기의 군주를 버리고 남의 군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

28. ⓐ～ⓔ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풀이한 것은?

① ⓐ 천도(天道) :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와 같이, 도덕의 근거가 되는 윤리적 '천'이 지닌 규범을 뜻한다.
② ⓑ 천운(天運) : "사생은 유명이요, 부귀는 재천이라."라고 할 때와 같이, 인간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운명적 '천'이 내린 운수를 뜻한다.
③ ⓒ 천연(天演) : "하늘이 명한 것이 성(性)이요, 성을 따르는 것이 도(道)이다."라고 할 때와 같이, 인간이 따라야 할 인격적 '천'의 역할을 뜻한다.
④ ⓓ 천공(天工) : "하늘은 일하지 않고도 이루고, 구하지 않고도 얻는다."라고 할 때와 같이, 무작위의 자연적 '천'의 조화(造化) 능력을 뜻한다.
⑤ ⓔ 천명(天命) : "40은 불혹이요, 50은 천명을 안다."라고 할 때와 같이, 인간이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할 주재적(主宰的) '천'이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29~3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나리자>는 아름답다."와 같은 미적 가치 판단에서 우리가 단언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미적 가치는 작품의 크기처럼 그 작품의 속성인가? 만일 가치가 작품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자주 어떤 것이 '나에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의 두 축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인데, 상대주의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의 이론적 문제들을 피하고자 한다.

상대주의는 객관주의가 시작하는 곳, 즉 미적 가치 판단은 말하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관한 언급이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상대주의자는 가치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를 따른다. 그러면서도 주관주의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벗어나기를 원한다. 즉, 작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떤 경험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며,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상대주의자인 루이스는 우선 대상의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가치와 미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가지는 느낌으로서의 가치를 구분한다. 좋은 경험은, 우리가 그것을 '유쾌한'이라고 하든 '만족스러운'이라고 하든, 본유적 가치의 경험이다. 본유적 가치란 도구적 가치와 상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무엇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을 말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사물은 엄밀한 의미로는 본유적 가치를 가질 수 없고, 오직 직접적인 경험만이 본유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물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에만 좋거나 나쁜 것이다. 한편, 어떤 대상의 지각에서 본유적 가치가 아무 매개 없이 즉각적으로 느껴질 때, 루이스는 그 대상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모든 미적 대상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루이스의 이론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다.

이제 미적 가치를 루이스 식으로 정의해 보자. 미적 가치는 절대적인 속성도 아니고 즉각적인 느낌도 아니다. 그것은 본유적 가치를 경험케 하는 대상의 잠재력 혹은 가능성이다. 이는 관계적 속성, 즉 인간과의 상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귀속되는 속성들 중의 하나이다. 그로 인해 미적 대상은 누군가가 지각할 때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대상이 인간과 실제로 접촉될 때에만 그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잠재력은 그것이 경험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 대상 안에 남는다. 이 점에서 상대주의는 객관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작품이 가진 가치의 잠재력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져야만 드러난다면, 똑같은 작품이 A에게는 즐거움을, B에게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상대주의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미적 가치 평가란 미적 경험을 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에 대한 진술, 즉 "나는 이것이 좋다."라는 틀릴 수 없는 판단과 동일하다는 것이 주관주의의 핵심이다. 반면, 상대주의자는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그 형식 그대로, 가치를 대상에 귀속시키는 판단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미가 본유적 가치 경험을 자극하는 하나의 잠재력이라고 보는 상대주의자에게 이러한 판단은 객관주의자의 이해와는 달리 일종의 예측이다. 만약 다른 이들이 그 작품을 감상한다면 그들도 미적 즐거움을 느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각각의 예측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상대주의자는 이로부터 모든 이의 평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더욱이, 루이스는 내가 어떤 음악에 대한 나의 현재 느낌을 잘못 판단할 리는 없겠지만, 그 음악이 그 느낌을 계속 불러일으키리라는 경험적 예측은 나중에 얼마든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느낌에 대한 보고가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29. 루이스 이론의 성격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① 미적 가치를 잠재력으로 본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 잠재력을 대상의 속성으로 본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② 미적 판단이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다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러한 느낌이 본유적 가치라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③ 미적 가치를 경험으로서의 가치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대상에 내재한 가치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④ 미적 가치를 미적 경험과 관계된 즉각적 느낌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러한 판단이 틀릴 수 없다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⑤ 미적 판단을 자신의 느낌에 근거한 수정될 수 없는 판단으로 보는 것은 주관주의적 성격이고, 그것을 수정될 수 있는 경험적 예측으로 보는 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이다.

30. 위 글에 나타난 개념들 중, <보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가 빵을 먹으면 빵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물론 아무도 먹고 있지 않을 때에도 빵은 영양가가 있다. 하지만 빵은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영양가가 있지 그 자체로 영양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대상의 잠재력 ② 경험적 예측
③ 객관적 속성 ④ 본유적 가치
⑤ 경험적 증거

31. 루이스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예측으로서의 미적 판단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지 않은가?
②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은 좋다."라고 의미 있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③ 가치 판단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것 이상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④ 평가 대상의 미묘함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미적 판단은 경험적 예측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⑤ 대상이 붉다고 느낀 것이 조명 탓이었다면, 그 경험에 근거한 미적 판단은 철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32~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22년에 푸리에는 모든 주기 운동은 적당한 진폭과 위상을 갖는 일련의 단조화(單調和) 운동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푸리에의 정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1843년에 옴(Ohm)은 소리가 복잡한 주기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리 또한 단조화 성분들로 분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에 따라 옴은 기본 진동수의 배수의 진동수를 갖는 단음(單音)들의 특수한 조합으로부터 악기마다 나오는 소리의 독특성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옴은 일반적인 악기의 음은 단음의 합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이 분리되어 귀에서 감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옴의 주장은 곧 제벡의 비판에 직면했다. 제벡은 음이 단진동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옴의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음은 항상 종합적으로 감각될 뿐이라면서 음이 분석적으로 감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이러한 제벡의 논박으로 옴의 청음 이론은 한동안 학계에서 잊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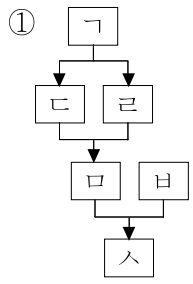
1855년에 헬름홀츠는 옴의 이론에 대한 제벡의 논박을 비판하면서 음향학 연구를 시작하였다. 헬름홀츠는 악기의 음 속에 존재하는 단음들을 분리해 내는 것이 옴의 이론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우선적 단계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헬름홀츠는 이 과정에서 유리 공명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공 모양의 유리 공명기는 한쪽에는 귀에 댈 수 있는 좁다란 주둥이를, 다른 쪽에는 소리를 주입할 수 있는 좀더 넓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다. 이 유리 공명기는 자체의 고유 진동음을 성분으로 갖는 복합음이나 고유 진동수의 단음이 주입될 때에만 진동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동하지 않았다. 헬름홀츠는 공명하는 유리 공명기의 좁다란 주둥이를 귀에 댐으로써 악기의 음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음만을 증폭시켜 들을 수 있었다. 이로써 악기의 음 속에 특정한 단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더 나아가서 헬름홀츠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에서 나오는 다른 진동수의 단음을 합성하여 복합음을 만들어 내는 소리굽쇠 합성기를 개발했다. 그는 이것을 이용해서 단음들의 조합으로부터 단일하게 들리는 여러 가지 음색을 가진 악기의 음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였다. 이렇게 그는 분석과 합성의 양방향에서 복합음이 단음의 조합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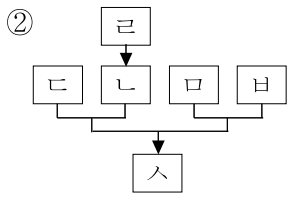
[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850년대 말에 헬름홀츠는 청음 메커니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옴의 주장을 받아들인 헬름홀츠는 귀가 어떻게 단음을 개별적으로 감각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공명 현상에 깊은 인상을 받은 헬름홀츠는 귀가 공명에 의해 개별 단음을 감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 현을 이용하여 수행한 공명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 귓속에서 이 실험의 현처럼 진동하는 기관을 찾고자 했다. 그는 코르티가 1851년에 발견한 코르티 막대들에 주목했다. 그는 크기가 각기 다른 수천 개의 코르티 막대들이 달팽이관 속에 피아노 현처럼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1863년에 헬름홀츠는 코르티 막대들이 특정한 단음들에 선택적으로 공명하고, 진동하는 코르티 막대마다 부착된 청신경이 자극을 뇌로 전달하여 소리를 감각하게 된다는 청각의 공명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물리적 개념이나 도구를 써서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은 헬름홀츠의 생리학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헬름홀츠의 공명 이론은, 이후에 수정을 거치게 되지만, 청각의 메커니즘에 대한 현대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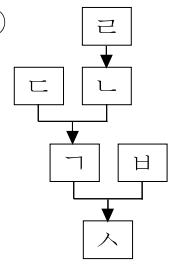
32. <보기>의 항목에서 필요한 것을 이용하여, 헬름홀츠의 공명 이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바르게 도시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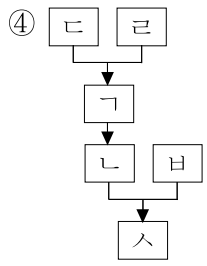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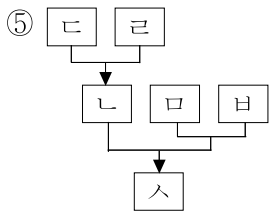
ㄱ. 옴의 청음 이론을 증명
ㄴ. 복합음이 단음의 합임을 입증
ㄷ. 유리 공명기 실험
ㄹ. 소리굽쇠 합성기 실험
ㅁ. 현의 공명 실험
ㅂ. 코르티 막대에 착안
ㅅ. 청각의 공명 이론 확립

① 

② 

③ 

④ 

⑤ 

33.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아노의 이웃한 두 건반을 함께 눌렀을 때, 현들에서 발생하는 음이 간섭하며 만들어 내는 소리를 관찰한다.
② 피아노 뚜껑을 열고 다른 악기에서 나오는 특정한 음에 피아노의 현들을 노출시켰을 때 어떤 현들이 진동하는지 관찰한다.
③ 소리굽쇠를 진동시키면서 그 소리굽쇠의 한쪽 가지 끝에 고정된 렌즈를 통해 손으로 진동시킨 피아노 현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④ 공명 상자의 양쪽 끝에 세운 기둥에 현의 양 끝을 고정하고 현을 활로 진동시키면서 공명 상자 위에 고르게 뿌린 모래가 모이는 모양을 관찰한다.
⑤ 소리굽쇠의 한쪽 가지에 현의 한쪽 끝을 연결한 후, 현의 장력을 바꾸어 가면서, 전자석을 이용하여 소리굽쇠를 주기적으로 진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의 진동을 관찰한다.

34. [가]에 나타난 헬름홀츠의 탐구 방법과 가장 가까운 방법이 사용된 사례는?

① 뢴트겐의 엑스선 발견은 칼을 대지 않고도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의학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② 볼타는 상이한 금속으로 된 두 전극에 의해 개구리 뒷다리가 수축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전지를 발명했다.
③ 파블로프는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준 개가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리는 현상으로부터 조건 반사를 발견했다.
④ 데카르트는 어두운 상자의 한쪽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바깥의 풍경이 상자 안의 스크린에 맺히게 하는 장치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사람의 눈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⑤ 파스퇴르는 효모 설탕액을 담은 플라스크를 가열하여 멸균시킨 후, 플라스크의 주둥이를 S자 모양으로 늘여 방치하였을 때, 플라스크 내부의 영양액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연발생설을 무너뜨렸다.

[35~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체의 발생을 설명하던 주된 이론은 전성설이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개체의 정자 또는 난자에는 성체의 구조가 이미 형성된 축소판이 존재하며, 이 축소판이 확장되면서 성체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볼프는 수정란이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각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개체 발생의 후성설을 새로이 부각시켰다. 나아가 그는 성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별한 물질과 그것이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수정란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뒤 루와 드리쉬는 수정란과 할구의 발생 능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볼프의 예측을 증명했다. 루는 각각의 할구들이 특이한 구성을 가진 인자를 물려받아 스스로 분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뜨겁게 달군 침을 이용하여 개구리의 2-세포기 배아에서 한쪽 할구를 죽인 후 그것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배양했을 때, 살아 있는 할구가 반쪽 신경능과 한쪽 귀만을 가진 배아로 발생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이에 비해 드리쉬는 성게의 초기 배아인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배아의 할구를 분리한 후 이를 배양했을 때, 각 단계의 할구가 모두 온전한 개체로 발생하는 실험 결과를 통해 할구의 운명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증명했다.

한편 수정에 대한 자세한 관찰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물질들이 결합하여 수정란이 된다는 것과, 핵 속에 들어 있는 이 물질의 실체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이 염색체는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할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전달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로써 유전자의 세대 전달과 개체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의 연속성 문제를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개체 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수정란과 초기 할구의 전발생(全發生)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개체가 성장한 이후에도 여전히 전발생 능력이 보존되는가 하는 의문이 싹트게 되었고, 나아가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의 재생 능력 차이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하등 동물과 고등 동물은 수정 이후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 개체로 성장하며,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그들의 재생 능력은 다르다. 해면의 체세포가 다시 완전한 성체로 자라는 것에서도 확인되듯이, 하등 동물은 성체가 된 후에도 수정란의 발생 능력을 잃지 않지만 토끼나 사람과 같은 고등 동물에서는 이러한 재생 현상이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차이는 유전자 발현 조절 능력이 계통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의 재생 능력이 지속되는 것은, 분화한 성체의 체세포가 수정란과 같은 종 특유의 온전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각 조직에서 그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발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고등 동물은 유전자 발현 조절의 메커니즘이 하등 동물에 비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재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등 동물에서 유전자 발현 능력을 제어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이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고등 동물의 체세포 역시 하등 동물과 같은 발생 능력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하여 고등 동물의 체세포 유전자 발현 제한 요소를 직접 조절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의 체세포 핵을 난자의 핵과 치환한 후, 그것을 발생시켜 배아 줄기 세포를 얻어 내는 성과가 있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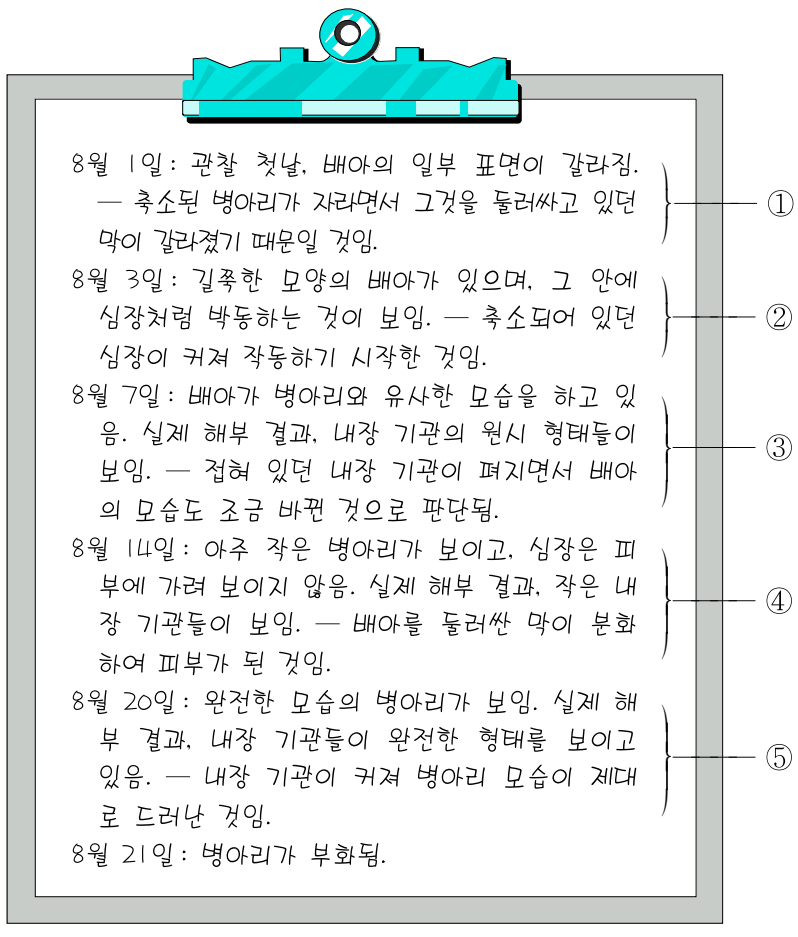
35. 위 글에서 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질문은?

① 발생과 재생은 어떤 관계인가?
② 개체 발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③ 유전자의 발현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④ 고등 동물의 재생 능력은 하등 동물보다 왜 제한적인가?
⑤ 생물체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36.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드리쉬가 루의 실험 방식을 적용하여 성게의 2-세포기 수정란의 한쪽을 죽이고 분리하지 않은 채로 배양했다면 루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② 전성설 지지자들이 루의 실험을 알았다면, 그들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한쪽 귀는 죽은 할구 쪽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③ 볼프가 제기하였던 '특별한 물질'은 유전자이며, '어떤 메커니즘'은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일 것이다.
④ 루와 드리쉬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험 대상 동물의 계통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⑤ 루는 할구의 운명이 수정 이후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성설 지지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7. 다음은 병아리의 발생 과정을 관찰·기록한 일지이다. 전성설의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38~4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세기 초 허블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가 낮은 긴 파장 쪽으로 분광선들이 이동되는 적색 이동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그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이 결과는 우주 진화를 설명하는 표준 대폭발 이론의 형성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표준 대폭발 이론에서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은하들의 고유한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의 '뜨거운 대폭발' 이후 우주의 팽창에 따른 냉각 과정에서 별과 은하 등의 재료가 되는 정상적인 물질이 모두 생성되었고, 현재 관측되는 절대 온도 2.7도의 우주 배경 복사(宇宙背景輻射)를 만드는 빛이 방출되었다고 한다.

[가] 그러나 표준 대폭발 이론에도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 방향에 관계없이 아주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을 보이는 등방성(等方性)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보가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가장 빠른 속도는 광속이므로, 한 지점으로부터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지평선 거리'보다 먼 지점과의 접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우주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두 영역은 방출될 당시 서로 지평선 너머에 있어 어떤 상호 작용도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거의 일치한다.

표준 대폭발 이론은 또한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주의 팽창을 언젠가는 멈추게 할 정도의 중력을 만들어 내는 밀도인 임계 밀도(臨界密度)에 가까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다.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모든 것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우주의 팽창과 중력과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주는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으면 가까스로 팽창을 계속하는 평탄 우주가 되고,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는 열린 우주가 되며, 임계 밀도보다 크면 어느 시점에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게 되는 닫힌 우주가 된다.

표준 대폭발 이론의 이런 문제점은 급팽창 이론이 제시되면서 해결되었다. 1980년대 구스는 우주가 탄생하고 10^{-35}초가 지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10^{50}배 정도로 급격히 팽창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영역들은 탄생 직후에는 지평선 거리 안에 가까이 있어서 상호 정보 교환으로 같은 온도가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이후 공간의 급팽창으로 지평선 거리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우주가 엄청난 크기로 급팽창했다면, 우주는 부분적으로 거의 평평하게 보이게 되어 우주의 평균 밀도는 임계 밀도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우주의 질량이 우주의 평균 밀도에 관한 이론적인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천체들을 포함한 정상적인 물질의 질량은 임계 밀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질량의 수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질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성미자, 약간의 질량을 가진 가상적인 입자 등이 그 후보로 거론되나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암흑 물질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인 1998년에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 있는 초신성의 관측으로부터 우주의 팽창 속도가 한때 생각되었던 것만큼 느리지 않고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은 미지의 에너지가 별도로 있어 서로를 끊임없이 밀어내지 않는 한 설명하기가 어렵다. 결국 암흑 에너지라 불리는 이 에너지가 우주 밀도의 70여 퍼센트를, 암흑 물질은 20여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우주에 대한 이해가 옳다면,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밤하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최근에 미국의 한 연구팀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주 나이가 지금의 두 배가 되면 우리 은하는 강한 인력에 끌려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 등과 합해져 밤하늘에 보이는 별의 수가 약 두 배가 된다. 그렇지만 먼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져서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관측자는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일부만 볼 수 있게 되어, 우리 은하단은 거대한 우주 공간의 작은 '섬 우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38.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올바르지 <u>않은</u> 진술은?

①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 우주 팽창에 작용한다.
② 우주의 모양과 운명은 임계 밀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다.
③ 우주의 미래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초기값에는 우주 평균 밀도가 포함된다.
④ 급팽창 이론은 우주 전체의 암흑 물질 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⑤ 평탄 우주는 표준 대폭발 이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급팽창 이론과는 양립 가능하다.

39. <보기>는 전체 우주에서 암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추론한 것이다.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온도가 가속적으로 감소한다.
ㄴ. 우주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를 넘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ㄷ. 우주 안의 정상적인 물질의 총질량이 가속적으로 증가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40. <보기>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가]와 <보기>를 함께 고려할 때 올바른 진술은?

<보 기>

1960년대 중반, 벨 연구소의 펜지아스와 윌슨은 극초단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에 방해가 되는 전파 잡음의 발생원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잡음이 안테나의 지향 방향과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안테나를 태양 방향이나 은하수 방향으로 맞추었을 때에도 잡음의 강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잡음을 일으키는 전파 신호가 태양이나 은하수에서 방출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 전파 신호는 곧 표준 대폭발 이론을 연구하고 있던 디키 등에 의해 표준 대폭발 이론이 예측하였던 극초단파 복사임이 알려졌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주 초기에 일어났던 대폭발의 잔열이었던 것이다.

① 우주 배경 복사가 등방적이라는 사실은 표준 대폭발 이론으로 예측된 것이었으나, 극초단파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로 받아들여진 것은 급팽창 이론이 등방성을 설명한 이후의 일이다.

② 우주 배경 복사는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할 당시에 등방적이라는 사실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에 그 등방성이 밝혀짐에 따라 표준 대폭발 이론의 지지 증거에서 반대 증거로 역전되었다.

③ 표준 대폭발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로 등장한 우주 배경 복사가 표준 대폭발 이론의 미해결 문제로 바뀌었던 것은, 후에 이 복사가 지평선 거리를 넘어서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④ 디키 등은 극초단파 복사가 전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대폭발의 잔열이므로 지평선 거리와 무관하게 등방성이 관측된다고 하였으나, 구스는 지평선 거리 너머의 등방성을 부인함으로써 급팽창 이론을 제시하였다.

⑤ 극초단파 복사는 등방성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로 확인되어 표준 대폭발 이론의 증거로 간주되었으나, 표준 대폭발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에서 왜 등방적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론이 되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